

## “손님 뚝, 안 팔려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 수산시장 뒤송송

### 소비자 방류전부터 원산지 민감...안팔려 버리는 꽃게도 수북 “코로나19보다 매출 반토막...방류하면 어시장 매출 직격탄”

“어시장 손님이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더 끊겼어. 방류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텐데 정부는 괜찮다고만 하니 앞이 캄캄하네.”  
지난 16일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수산물 시장은 여름철 비수기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까지 겹치면서 침체된 분위기였다.  
새벽부터 전남 안도·보성·고흥지역에서 들 여온 싱싱한 생선이 전열대에 놓여있었지만, 찾은 발길은 뜸했다.

한 상인은 텅 빈 장부를 바라보다 “지금도 없는데, (방류 시) 앞으로가 더 걱정이야”라며 몸을 일으켜 고등어 위로 앉은 파리를 쫓아냈다.  
또 다른 상인은 여러 차례 호객 행위에도 구매하려는 손님이 없자, 머쓱해하며 다시 해산물을 다듬었다.  
소비자들은 방류 임박을 의식하는 듯 가격보다 원산지를 꼼꼼히 살폈다.

한 주부는 국내·외국산이 적힌 원산지를 번갈아 가며 살폈다. 상인이 “짜게줄텐게 가져가”라고 했지만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렸다. 방류 전부터 국내산보다 일본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찾는 고객도 있었다.  
주부 김현영(53·여)씨는 “오염되기 전 수산물 미리 사재기하는 지인들이 많다”며 “방류시 해양 오염이 걱정돼 수산물을 거의 안 먹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산물 도소매를 하는 구순자(62)씨는 “코로나19때 꾸준한 소비는 있었는데 지금은 방류 앞두고 수산물 구매를 기피한다”며 “매출도 1년 전보다 반토막 났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수산물시장이 16일 오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영광 단오제**  
법성포 천년 단오제에 축하합니다

단오, 단오제

2023 영광법성포단오제

- 일시: 2023. 6. 22.(목) ~ 6. 25.(일) 4일간
- 장소: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및 법성포 뉴타운 일원 • 문의: 061-356-4331
- 주최/주관: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 법성포단오제 제전위원회
- 후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영광군수협, 영광군농협, 영광군의회, 한수위주한빛원자력본부, 영광군수협, 굴비골농협

영광기독병원	거명의료재단	영광군산업조합	영광군수협	영광군농협	영광군수협	영광군농협	영광군의회	영광군수협	영광군농협
이사장 김경욱	대표이사 김경욱	조합장 정태범	조합장 서재창	조합장 김용출	조합장 강상호	조합장 김남철	조합장 정길수	지부장 조기영	본부장 최현규

문 닫아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진열대에 팔리지 못하고 폐사한 꽃게 10여 마리도 눈에 띄었다.  
7년째 가게를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다운(34)씨는 “올 초엔 폐기 수산물이 매일 30 정도 나왔는데, 방류 소식 이후 손님이 줄어 폐기량이 두 배 늘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은 방류수 위험·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보나 대응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수산업자 김민준(45·여)씨는 “정부에선 수산물 구매 장려를 하고 있지만 의문투성이 방류수 안전성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생선을 사겠냐”며 “해류가 돌면서 아무리 작은 수처리라도 오염원이 국내로 유입될텐데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 지역 어민들도 방류에 따른 소비 침체를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영준 여수시 들산읍 백초어촌계장은 18일 “지역에서 잡은 생선이 광주·서울 등 여러 지역으로 팔리는데, 방류 임박 소식 이후 점차 주문량이 점차 줄고 있다”며 “방류가 본격화하면 동·남·서해 순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판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한다.  
이슬비기자

## 광주·전남 연일 폭염특보...낮 최고 평균 27~34도

### 내일 오후부터 비 예보

경보로 격상한다.  
이날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평균 27~34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7시 기준 최저기온은 광주 21도, 여수 21.4도 목포 20.5도, 장성 17.6도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나 광주·전남은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낮 기온이 올라 덥겠으며, 오는 20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변용일기자

## 광주시, 아동·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도입하나

광주시가 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버스를 이용한 어린이·청소년은 하루 평균 3만3000여 명에 달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 이용 방안, 어린이·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이용 방안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시대를 맞아 향후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 부처 또는 교육청 지원 방안 등 여러 측면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 ‘어린이’ ‘어린이·청소년 모두’ 두가지 방안 비교 검토 “10억~110억 예산 소요, 여러 측면 검토 뒤 신중히 결정”

지난해 시내버스 어린이 승객은 하루 평균 5000명, 청소년은 2만8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연간 수익은 어린이 승객 10억 원, 청소년 승객의 경우 90억~100억 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무상버스안을 도입할 경우 매년 적게는 10억 안팎, 많게는 110억이 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광주지역 만 6~12세 어린이는 9만7000여 명, 만 13~17세 청소년은 7만1000여 명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달 2일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 관련 시장 질문에 “시와 시의회 간 통 큰 합의만 이뤄진다면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예산 100억 원은 크지 않다(아깝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 큰 합의만 된다면,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또는 무상교통에 준하는 정책은 가능한 것이다. (이번 시장질문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도입의지를 피력했다.  
최이슬기자